

*캐릭터 설명

홍두식/ 63세: 국밥집 배달 라이더. 고생 끝에 일자리를 찾게 되고 악덕 사장 밑에서 제대로 된 임금도 못 받으며 배달로 생계를 유지한다. 이후 국밥집 사장이 쓴 사채로 인해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행패에 휘말리게 된 사건을 통해 그가 한때 전국구를 통폐합하고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전설의 주먹인 걸 알게 된다. 이후 평소 그에게 원한을 가졌던 조직 보스의 귀에 그가 살아있단 소식이 전해지고 암흑가의 조직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일이 점점 꼬이며 사건이 점점 커지게 된다.

#홍두식의 각성

노숙자 한규는 배달원 두식을 찾아 다닌다. 국밥집에 가니 '임시 휴업'이라 쓰여 있을 뿐 인기척을 느낄 수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한규는 인가가 드문 고물상 비닐하우스에서 두식을 찾게 되고, 모닥불을 피운 사이로 둘의 정적이 흐른다. 그날 있었던 사건의 주인공이 두식임을 묻는 한규. 대답 없이 두식은 무언가를 모닥불 사이로 하나 둘씩 던지며 소각한다. 그러던 사이 모닥불 불씨가 점점 작아진다. 두식은 주변에 있는 낙엽을 모아 모닥불에 짚어 던진다. 낙엽을 던지자 모닥불에 불이 솟아오르기 시작한다. 불길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두식은 말을 내뱉는다.

홍두식: 어때요? 우리 그동안 잘 살아 온거 맞나요? 난 그렇지 못 했던거 같소이다.

세상에 휘말리기 싫어 보고도 못 본 척 하고 알아도 모른척 하고 다녔는데 이젠 비겁해지지 않으렵니다.

(혼자 웃는다) 하~세상의 기준과 이치는 거꾸로 가고 악한 세력은 더 강해지는데 누군가 잘 못됐다 말하는 사람 없고 세상을 고치려는 사람은 더더욱 없고 우리 아이들과 그 다음 세대들은 그런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악으로 커 갈 꺼요. 아무리...아무리 바꿀 수 없다해도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하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 살만큼 살았잖아요? 조금은 올바른 세상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 줍시다. 그게 어른들이 해야할 일 아니요?

한규는 떨리는 눈빛으로 말없이 낙엽을 태우는 두식을 바라보고 있다.

홍두식: 그말 아슈? 나무에 무수히 붙어 있던 잎들이 떨어지면 아무 쓸데없는 낙엽이 되지요.

그런데 재미 난건 낙엽은 불이 잘 붙는다거죠. 그것도 활활...그리고 한순간에 재로 변하는... 우리들 인생 같지 않아요?

(불타오르는 낙엽불을 보고 있다) 나 마지막으로 낙엽이 돼보려 합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바라본다) 이 세상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번 타올라 보려고요...

한규는 그럼 마지막엔 재만 된다고 말리려 하지만, 두식은 활활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며 다짐한 표정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CUT.